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쿠웨이트

State of Kuwait

2021년3월29일 | 책임조사역(G3) 류강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8천 km <sup>2</sup> (한반도의 8%)	<b>인구</b> 4.9백만명 (2020 <sup>e</sup> )	<b>정치체제</b> 입헌군주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실리외교
<b>GDP</b> 1,086.56억 달러 (2020 <sup>e</sup> )	<b>1인당GDP</b> 22,252.43 달러 (2020 <sup>e</sup> )	<b>통화단위</b> Kuwaiti Dinar	<b>환율(U\$기준)</b> 0.31 (고정환율)

-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쿠웨이트는 북쪽으로 이라크,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해 있으며, 동쪽으로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음.
- 전체 인구 중 쿠웨이트인이 30%에 불과하고, 아시아인(40%)과 아랍인(27%) 등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함. 수니파 중심의 이슬람 국가이나 소수의 시아파에 대한 차별이 덜해 이슬람 종파 간 갈등이 적고,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회질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인구 490만 명,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8%에 불과한 1.8만 km<sup>2</sup>의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원유 매장량(세계 7위)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다만,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며, 2020년 저유가가 지속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수출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
- 199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점령당했으나, 1991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참전으로 이라크의 점령에서 해방되었음. 2020년 9월 사바(Sabah) 국왕의 서거 후 가문 내 합의에 따라 선왕의 이복동생인 나와프(Nawaf) 왕세제가 신임 국왕으로 즉위하였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9. 6. 11 수교 (북한과는 2001. 4. 4)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82년), 문화협정('83년), 무역증진협정('84년), 이중과세방지협약('00년), 경제·기술 협력협정('06년), 투자증진·보호협정('07년), 형사사법공조조약('08년), 범죄인인도조약('13년), 외교관·관용·특별사증면제협정('15년), 수형자이송조약('15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1,252,986	956,032	660,359	자동차, 공기조절기 및 냉방기, 선박해양구조물
수입	12,794,285	10,771,088	5,827,701	원유, 석유제품, LPG

**해외직접투자 현황(2020년 말 누계)** 31건, 27,081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2.9	-4.7	1.2	0.4	-8.1
소비자물가상승률	3.5	1.5	0.6	1.1	1.0
재정수지/GDP	0.3	6.3	9.0	5.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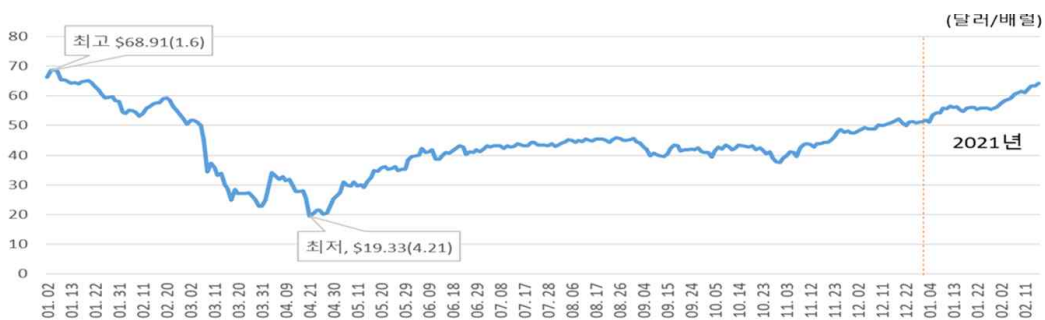
자료: IMF, EIU

※ IMF에서 발표하는 쿠웨이트의 재정수지는 미래세대기금(FGF, Future Generation Fund) 적립의무 이행 전 수치임

### 2020년 저유가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원유 수요 감소로 -8% 대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추정

- 쿠웨이트는 GDP의 약 40%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여 국제유가 등 대외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경제 구조이며, 2020년 저유가가 지속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원유 수요 감소까지 겹쳐 IMF는 2020년 쿠웨이트 경제가 -8.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함.
-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치(lockdown)'로 2020년 2분기 경제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며 수요충격이 크게 발생하여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9.33달러(2020.4.21자)까지 하락한 바 있고, OPEC+의 감산 합의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2020년 역성장이 불가피하였음.

### 2020년 이후 국제유가 추이(브렌트유 기준)



자료 : 한국석유공사

- EIU는 2021년 OPEC+의 원유 감산 기조 지속 등으로 인한 완만한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석유 수출 증가에 힘입어 쿠웨이트 경제가 2.2%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고, IMF는 석유 부문의 부진 지속에도 부동산, 금융 등 비석유 부문의 성장으로 2021년 쿠웨이트 경제가 0.6%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국내경제

### 재정수입의 원천인 석유 부문의 부진에도 공공임금 및 보조금 지출로 재정부담 확대

- 쿠웨이트는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석유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저유가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수출 감소로 재정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 부문 지출이 가중되어 재정수지가 GDP의 -8.5%에 달하는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과거 쿠웨이트는 석유 부문 호조로 1999~2014년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수지 흑자(GDP 대비 평균 27% 수준, IMF)를 기록하였으나, 2015~16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함.
  - 한편, 총 공공 부문 임금 및 보조금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 IMF는 쿠웨이트의 공공 부문 임금이 2010~18년 간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14% 수준으로 2000~09년의 11% 대비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 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함.
- GCC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 부문 임금 비중
- | 국가  | 1990-1999 (%) | 2000-2009 (%) |
|-----|---------------|---------------|
| BHR | ~14           | ~11           |
| KWT | ~16           | ~11           |
| OMN | ~15           | ~10           |
| QAT | ~15           | ~7            |
| SAU | ~18           | ~16           |
| UAE | ~5            | ~4            |
- AE : 선진국 평균(Advanced Economies)  
연두색 빗금은 2010~18년 평균치임  
자료 : IMF
- 쿠웨이트 정부는 2021.1.25.자 발표를 통해, 2021회계년도에는 석유 부문 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전년 대비 46% 증가한 360억 달러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임금과 보조금 지출 부담 등으로 인해 4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가 전망된다고 밝힘.
- 석유 부문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세수 확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5%의 부가가치세(VAT)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세수 확보 효과가 GDP의 1.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도입 추가 연기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당초 2018년 도입 예정)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유가 회복과 함께 공공 부문 지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임.
- 2021회계년도 예산 편성 기준 유가가 배럴당 45달러 수준으로 최근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증가, 2021.3월 OPEC+의 제한적인 증산(+15만 b/d) 발표 등으로 국제유가가 연초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유가 회복에 따른 재정건전성 회복 가능성이 존재하나, 공공지출 개혁이 정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단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재정건전성 회복의 걸림돌임.

## 국내경제

### 공공부채법(Public Debt Law) 통과 지연 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상존

- 2015년 이후 지속된 저유가로 재정 여력이 감소했음에도, 쿠웨이트 정부는 2017년 3월 8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한 이후 공공부채법\*(이하 부채법) 만료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못함. 2020회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봉쇄조치 등으로 재정수입은 감소(직전 회계년도 대비 22.3% 감소 추정)한 반면, 부양책 및 공공 부문에 대한 지출 등으로 재정지출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직전 회계년도 대비 1.4% 감소 추정)을 기록하여 유동성 확보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 정부는 2020년 8월 국채 발행을 위한 부채법 초안을 발의 하였으나 의회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으며, 아직까지 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으로 부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
- 국왕은 긴급 칙령(Emergency Decree)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부채법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으나, 2020년 12월 총선 결과가 사실상 야권의 승리(총 50석 중 8석이 증가한 24석 차지)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긴급 칙령을 발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임.
  - \* 공공부채법 : 정부 차입 한도 및 만기 등을 명시한 법으로, 쿠웨이트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정부채 발행이 가능함. 2021.3월 쿠웨이트 정부는 차입한도 확대(GDP의 60%), 차입만기 제한 삭제(現 최장 30년)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부채법을 통한 유동성 확보 외에 현실적인 대안은 미래세대기금(FGF, Future Generation Fund)을 통한 자원 마련이나, 이 역시 정부와 의회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쿠웨이트는 2020년 OECD 자료 기준 5,470억 달러 규모(GDP의 503%)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동 펀드는 미래세대기금과 일반준비기금(GRF, General Reserve Fund)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준비기금에 한하여 재정지출에 사용할 수 있음.
- IHS Markit에 의하면 2019년 일반준비기금 규모는 550억 달러 수준이나 현재 자원이 대부분 소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준비기금 활용 여력이 낮은 상황임. 한편, Bloomberg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는 재정적자 충당을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397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자산을 미래세대기금에 이전했다고 밝힘.
- 국부펀드의 나머지 자산을 구성하는 미래세대기금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특별 승인이 필요하나, 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으로 단기간 내에 자금 전용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사안의 중요도 및 정부가 의회와의 타협을 위해 절충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의회가 역사적으로 유권자들을 위한 지출을 우선 순위로 두었던 점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최근 3년 간 1% 대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

- 쿠웨이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3년간 1%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EIU는 5% 수준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식료품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쿠웨이트의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3% 수준으로 전망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642	7,757	24,049	33,811	-851
경상수지/GDP	0.6	6.4	17.1	25.0	-0.8
상 품 수 지	20,054	25,648	45,711	35,361	16,180
상 품 수 출	46,617	55,175	77,080	64,797	39,965
상 품 수 입	26,562	29,527	31,370	29,436	23,786
외 환 보 유 액	28,965	31,430	34,788	37,434	45,495
총 외 채	41,984	54,239	61,650	66,065	70,095
총외채잔액/GDP	38.4	44.9	43.8	48.8	64.5
D.S.R.	3.3	3.0	3.4	4.1	7.1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흑자 감소와 서비스·이전소득 수지 적자 지속으로 2020년 경상수지 적자 전환 추정

- 석유 부문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쿠웨이트는 세계 7위의 원유 확인매장량(2019년 말 기준 1,015억 배럴,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함. 2020년에도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 저유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부문 수출 감소로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54.2%)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국제유가가 반등하자(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2017년 54.71달러 → 2018년 71.34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및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쿠웨이트 경제는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함.
- 반면, 2020년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8.9% 감소에 그친 -18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전소득 수지 적자는 5% 증가한 -16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이전소득 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2020년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EIU에 따르면 2021년 쿠웨이트는 글로벌 수요 회복, 원유 생산량 증가 및 국제유가의 점진적 상승 등으로 GDP 대비 2.2%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능력

### 석유 수출 부진에 따른 총수출액 감소로 D.S.R. 상승

- 2020년 쿠웨이트의 외채 원리금 상환액은 4,729.0백만 달러(전년 대비 1.1% 증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석유 수출 감소 등에 기인한 총수출액\* 감소(69,021.7백만 달러, 전년 대비 40.5% 감소)로 2020년 말 D.S.R.은 전년 대비 3.0%p 상승한 7.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출 + 서비스수출 + 본원소득수취

### 외채 부담 증가에도 세계 5위 규모의 국부펀드를 기반으로 한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유지

- 2020년 쿠웨이트의 외채규모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70,095백만 달러 수준이며, GDP 대비 외채 비중은 전년 대비 15.7%p 증가한 64.5%로 추정됨. OECD 자료 기준 2020년 말 쿠웨이트의 국부펀드 규모는 GDP의 5.0배 및 외채의 7.8배 수준인 547,023백만 달러 규모로, 국부펀드가 경제 및 재정의 안전판으로 작용하여 외채규모 증가에도 양호한 외채상환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구조적취약성

### 석유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석유 부문이 GDP의 40% 이상, 수출 및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국제유가 변동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며, 2015년 이후 저유가의 장기화로 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음.

### 쿠웨이트의 산업현황(2019)

(단위 : USD억)

구분	분야	2019년 기준	
		GDP	비중
오일분야		607.3	44.8%
비오일 분야	농업 및 어업	5.9	0.4%
	제조업	93.4	6.9%
	전기, 가스 및 수도	37.6	2.8%
	건설	38.0	2.8%
	도소매	54.4	4.0%
	호텔, 식당	13.5	1.0%
	통신, 교통	82.0	6.1%
	금융	125.9	9.3%
	부동산	128.0	9.5%
	기타 서비스	329.2	24.3%
	(-) 순세금(Net Taxes) 등	(161.1)	-11.9%
비오일 부문 총계		746.9	55.2%

자료 : 쿠웨이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Kuwait)

- IMF에 의하면 2021년 쿠웨이트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국제유가 수준은 65.7달러로, IMF 및 EIU는 2021년 국제유가 전망치를 각각 배럴당 50달러 및 52.5달러 수준으로 전망함. 다만,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 OPEC+ 및 미국의 제한적인 원유 공급 증가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국제유가가 당초 전망치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음.

### 공산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소비시장

- 생산기반 부재로 일반 생필품에서 자본재에 이르기까지 공산품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2016~20년) 평균 상품 수입액은 281억 달러로 GDP의 약 23%에 달하고 있음.

### 높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에 따른 만성적인 이전소득수지 적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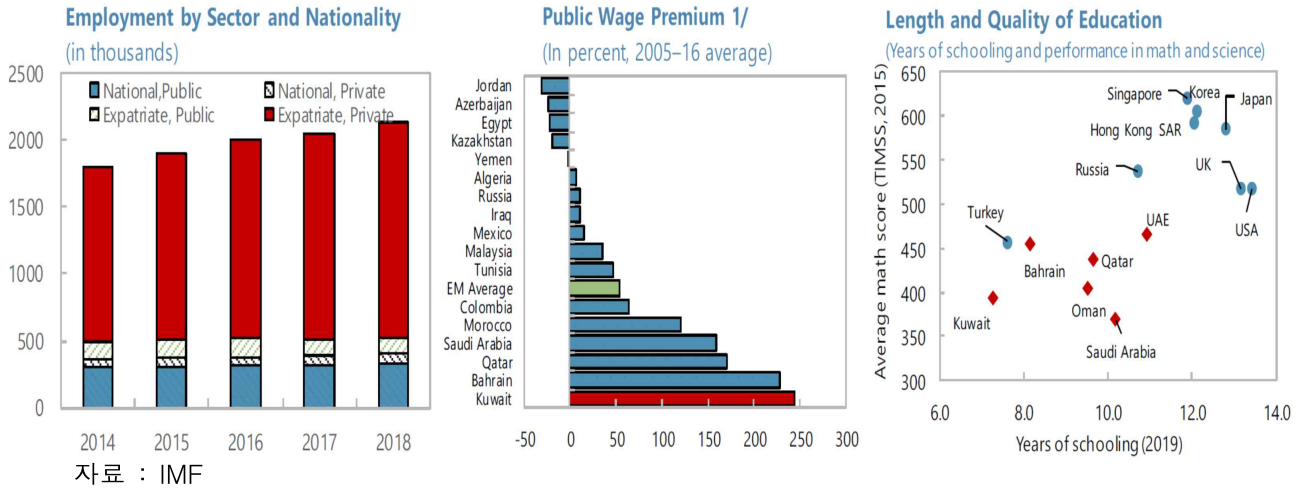
- 쿠웨이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약 70%인 3.4백만 명으로, 국내 거주 노동자의 5개년(2015~19년) 평균 해외 송금액은 145억 달러로 GDP의 12%에 달하며, 같은 기간 평균 이전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159억 달러 수준임.

### 공공 부문에 대한 쿠웨이트 국민의 높은 취업의존도 및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여력 저하

- IMF에 따르면 쿠웨이트 국민의 약 80%가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2배 이상의 높은 임금 격차에 기인함.
- 쿠웨이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간 노동시장에 유입될 10만 명(쿠웨이트인 노동자의 22% 수준)의 쿠웨이트인 노동자를 공공 부문이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민간 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임.
- IMF는 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쿠웨이트인의 민간 부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부문 임금 개혁과 함께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한 노동인력의 기술(skill) 향상의 필요성을 언급함.



## 구조적취약성



## 성장잠재력

### 원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2019년 말 기준 1,015억 배럴의 원유(세계 7위) 및 1.7조 m<sup>3</sup>의 천연가스(세계 18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이는 2019년도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원유 및 천연가스를 향후 각각 92.8년 및 92.1년 동안 생산 가능한 규모임.

### 3대 주요 거대 시장을 연결하는 요충지

- 쿠웨이트는 걸프만을 중심으로 1억 5천만 명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과 국경을 마주한 요충지에 위치하여 유통업이 발달했고, 주변국의 유통망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음. 걸프 북부의 무역·금융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한 북부 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최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에서 카타르에 대한 봉쇄 해제 움직임으로 쿠웨이트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증가할 개연성이 있음.
- 대표적인 인프라 구축 현황으로는 2019년 준공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교량\*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사업'이 있으며,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연결하기 위한 총연장 574km에 이르는 철도 사업 및 부비얀 항만 건설 사업 등이 추진 중임.
  - \* 총 길이 48.57km로 ①슈웨이크 자유무역 지역과 북부의 수비야 지역을 가로지르는 메인 구간(36.14km)과 ②슈웨이크 자유무역 지역과 북서부 도하 지역을 잇는 연결 구간(12.43km)으로 구성

## 성장잠재력

### 글로벌경쟁력지수,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상승폭 기록

-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9년 쿠웨이트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는 141개 대상국가 중 46위로 전년 대비 8계단 상승하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임.
- 거시경제 안정성(1위)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12위) 및 적극적인 ICT 기술(37위) 채택 등으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7.3년에 불과한 짧은 평균 교육연수(102위) 및 근로자의 기술력(80위) 등 인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남아 있음.
- ※ GCC 글로벌 경쟁력 지수(순위, 등락폭) : 아랍에미리트(25위, ↑2), 카타르(29위, ↑1), 사우디아라비아(36위, ↑3), 바레인(45위, ↑5), 오만(53위, ↓6)

## 정책성과

### 석유 의존형 경제 탈피를 위한 경제개발계획 New Kuwait 2035 추진

- 쿠웨이트 정부는 2017년 1월 중동의 비즈니스, 문화, 교육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중장기 국가개발 계획인 New Kuwait 2035를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5대 전략과 7개 축(Pillar)을 기반으로 석유 의존형 경제 탈피 및 산업 다각화, 정책실현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축을 중심으로 총 16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수립·실행되고 있음.

5대 전략	7개 축(세부 이행 방안)	
① 시민참여 확대 및 준법정신 확립 (Citizen Participation and Respect of Law)	① 공공 분야 (Public Administration)	행정, 정책실현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② 경제 분야 (Economic)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구조 탈피 및 산업 다각화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
②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Effective Government)	③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현대화 및 개발, Jahra, Bubiyan섬 등 북쪽 지역 개발을 통해 물류 중심으로 도약
	④ 생활환경 (Living Environment)	주택보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③ 경제 지속성장 기반 구축 (Prosperous Economy)	⑤ 보건의료 (Health Care)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의료서비스 개선
	⑥ 인적자원 개발 (Human Capital)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강화
④ 국가 통합 공고화 (Nurturing Nation)	⑦ 국가적 위상 (Global Position)	국제적으로 쿠웨이트의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위상 강화
	⑤ 국제사회 역할 확대 (Globally Relevant Player)	

자료 : KOTRA

## 정책성과

### 의회의 반대로 경제·세제 개혁 지연

- 쿠웨이트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GCC 국가 중 유일하게 의회가 존재함. 의회가 내각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교적 선진화된 정치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정부의 추가 국채 발행을 위한 부채법(Debt Law) 개정이나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VAT) 도입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정책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음.

### 정책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지수는 글로벌 평균 수준

- World Bank는 공공·공무원 서비스, 정책 수립과 이행 및 이러한 자질을 높이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4개 국가에 대해 정책 효율성 지수를 표준 정규분포[-2.5(Bad)~2.5(Good)] 형태로 매년 산출하고 있음. 쿠웨이트는 2017년 -0.2점, 2018년 -0.1점, 2019년 0.0점을 기록하여 글로벌 평균 수준에 수렴하며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GCC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GCC 국가 : 아랍에미리트 1.4, 카타르 0.7,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오만 0.3

### 통화 바스켓 형태의 고정환율제 채택

- 쿠웨이트는 2007년 5월부터 미 달러 등 주요 통화 바스켓 페그(basket peg) 방식의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바스켓 구성 통화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으나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유로화 등 무역·금융상의 주요 상대국 통화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짐.
- 석유 부문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쿠웨이트는 정부의 재정수입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 규모를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고정환율제도의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정치안정

### 2020년 9월 사바 국왕 서거, 나와프 왕세제가 국왕으로 즉위

- 2006년 즉위 후 40년 이상의 세계 최장기 외교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과 카타르 간의 단교 사태(2017) 해결 등을 포함 역내 국가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자임했던 사바(Sabah) 국왕이 2020년 9월 29일 91세를 일기로 서거하고, 쿠웨이트 헌법에 따라 선왕의 이복동생인 나와프(Nawaf) 왕세제가 국회 선서 절차를 거쳐 9월 30일 신임 국왕으로 즉위하였음.
- 나와프 국왕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교상으로 친미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 경제개발계획 추진 등에도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자베르 가문의 신임 왕세제 임명을 통한 가문 내 왕위 계승 공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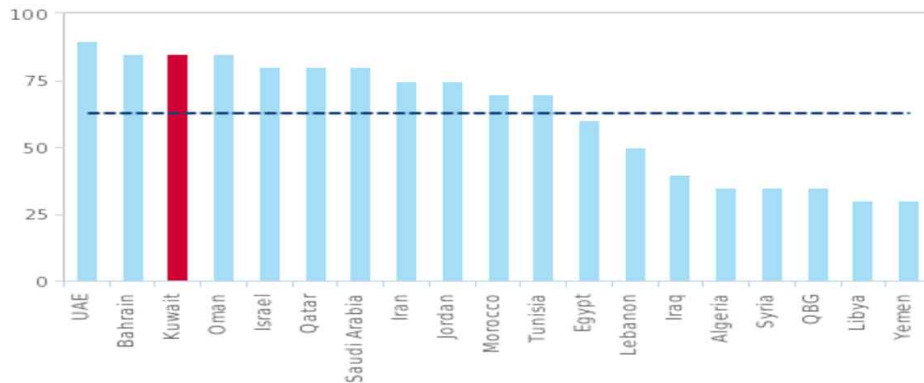
- 신임 나와프 국왕은 2020.10.8.자로 자신의 이복동생인 셰이크 메살(Sheikh Meshal)을 신임 왕세제로 책봉, 조기에 정권 안정화를 꾀하고 자베르 가문의 우위를 보다 공고하게 다져 왕위 계승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쿠웨이트는 자베르(Al-Jaber) 가문과 살렘(Al-Salem) 가문이 교대로 왕위를 세습하였으나, 2006년 이후 자베르 가문이 왕권을 잡은 후 이복형제 간 왕위 세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메살 왕세제 책봉으로 자베르 가문에서 3회 연속 왕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도 기존 정책 기조 유지 전망

- Fitch는 사바 前 국왕이 나와프 국왕을 2006년 직접 왕세제로 책봉한 바 있고, 안정을 추구하는 나와프 국왕의 성향 등을 근거로 새로운 지도부가 기존의 정책 기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MENA(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 중 쿠웨이트의 정책 연속성 수준을 높게 평가함.
- 메살 왕세제 역시 내무부의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쳐 방위군 부국장에 오르며 사바 前 국왕의 신임을 얻은 인물로, 나와프 국왕의 메살 왕세제 책봉은 정책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됨. 다만, 나와프 국왕(84세)과 메살 왕세제(81세) 모두 비교적 고령인 점은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

## 정치안정

MENA 국가들의 정책 연속성 점수



점선 : MENA 지역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 연속성 높음

자료 : Fitch

### 의회 내 야권 의원 수 증가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난항 예상

- 2020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국회의원 50명 가운데 야권이나 야권 성향 후보가 24명으로 파악돼 종전 (16명)보다 8명이 증가함. 이번 총선으로 의원의 2/3인 31명이 의석을 잃었으며, Reuters는 총선 결과가 정부의 긴축 정책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의 표현일 수 있다고 해석함.
- 최근 총선 결과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며, 쿠웨이트의 정부와 의회 간 빈번한 교착 상태는 정부 개편과 의회의 해산으로 이어져 투자 및 경제·재정 개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현재 정부와 2021년 새롭게 구성된 의회 간의 충돌의 결과 나와프 국왕은 2021.2.18일자로 한 달 동안 의회의 회의를 중단하는 법령을 발표함.
- 쿠웨이트는 걸프 지역 국가들 중 가장 역동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음. 고위 정부 직책은 지배 왕족 (Ruling Family)이 차지하고 있으나, 4년마다 치르는 선거를 통해 의회의 구성원이 선출됨. 의회는 내각에 대한 질의권 및 불신임권 등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회의 대정부 질의권이나 각료 불신임권을 행사하고 있음. 다만, 공식적인 정당 결성은 금지되어 있으며, 국왕은 헌법에 따라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사회안정

### 풍부한 복지혜택 제공 등으로 사회적 안정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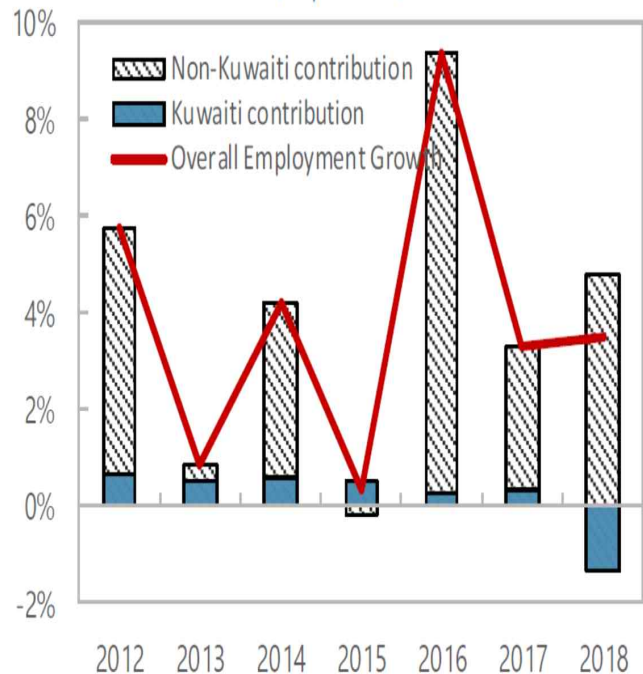
- 쿠웨이트는 과거 석유 판매를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결혼 시 무상 주택 공급, 각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20년 세계평화지수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MENA 지역 내 최상위권(2위) 수준의 평화지수를 기록함(163개국 중 39위).
- 다만, 최근의 저유가 지속과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여력 저하로 쿠웨이트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조금 개혁, 부가세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불만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현재 쿠웨이트인은 주로 공공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경우 최고 관리직 및 경영을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 부문에서의 취업 기회 감소로 쿠웨이트인의 실업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은 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임.

2020년 MENA 세계평화지수  
Middle East & North Africa

Regional Rank	Country	Overall Score	Score change	Overall Rank
1	Qatar	1.616	-0.046	27
2	Kuwait	1.723	-0.048	39
3	United Arab Emirates	1.752	-0.042	41
4	Oman	1.941	-0.012	68
5	Jordan	1.958	-0.027	72
6	Morocco	2.057	0.005	83
7	Tunisia	2.09	0.009	92
8	Bahrain	2.209	-0.111	110
9	Algeria	2.287	0.002	117
10	Saudi Arabia	2.443	-0.021	128
11	Egypt	2.481	0.052	130
12	Iran	2.672	0.137	142
13	Palestine	2.699	0.052	143
14	Israel	2.775	-0.004	145
15	Lebanon	2.828	-0.054	146
16	Sudan	3.043	0.1	153
17	Libya	3.258	-0.011	157
18	Yemen	3.411	0.051	159
19	Iraq	3.487	0.119	161
20	Syria	3.539	-0.023	162
<b>REGIONAL AVERAGE</b>		<b>2.513</b>	<b>0.006</b>	

자료 :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Employment Growth and Contribution  
(In percent)



자료 : IMF

## 사회안정

### 2020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GCC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2020년 쿠웨이트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는 42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78위에 올라 2019년 대비 7단계 상승하였으나, GCC 국가 중 바레인(42점, 78위)을 제외한 아랍에미리트(71점, 21위), 카타르(63점, 30위), 오만(52점, 49위), 사우디아라비아(53점, 52위) 등과 비교시 역내 하위권 수준임.
- 2020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이 새롭게 선출되며 야권 비중이 증가한 점 역시 부패와 관련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존재함.

### 사회적 자유도는 부분적 자유(Partly Free) 수준이나, GCC 국가들 중에서는 상위권

- 미국 Freedom House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2020년 쿠웨이트의 사회적 자유도(Global Freedom Scores)는 37점(100점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정치적 권리 14점(40점 만점), 시민의 자유 23점(60점 만점)를 받아 쿠웨이트는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가 있는 국가로 분류됨.
- 쿠웨이트만이 유일하게 GCC 국가 중 일정 부분 자유가 있는 국가로 분류됐으며, 카타르(25점), 오만(23점), 아랍에미리트(17점), 바레인(12점), 사우디아라비아(7점)는 모두 '자유가 없는(Not Free)' 국가로 분류되어 GCC 국가들의 사회적 자유도는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 수준이라고 평가받음.

## 국제관계

### 미국과 강력한 연대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개발 협력 강화

- 쿠웨이트는 1990년 걸프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안보 분야에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1991년 양국 간 안보동맹을 체결한 후 정치·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7년에는 새롭게 관세·원유·교육·과학·투자 등 7개 분야에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 중임.
- 한편, 2018년 7월 사바 국왕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쿠웨이트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一帶一路(Belt and Road Initiative)' 개발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2019년 기준 쿠웨이트의 최대 수출상대국(20.7%, 2019년 기준)이자 2위 수입상대국(11.6%)으로, 양국은 ①방위산업 협약, ②화웨이-쿠웨이트 정보통신부(CITRA) 스마트시티 협력 MOU, ③실크 시티 프로젝트 협력 MOU 등 'New Kuwait 2035' 플랜과 연계하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19년 쿠웨이트 상위 5대 교역 대상국>

(USD억, 비중)

순위	수출국	금액	순위	수입국	금액
1	중국	134(21%)	1	UAE	85.4(26%)
2	한국	108(17%)	2	중국	38.6(12%)
3	인도	92(14%)	3	미국	31.7(10%)
4	일본	69(11%)	4	일본	17.2(5%)
5	대만	43(7%)	5	사우디	16.2(5%)
			9	한국	9.6(3%)

자료 : KOTRA

## 국제관계

### 오만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4개국과 카타르 간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중재

- 걸프 지역 6개 수니파 왕정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은 GCC를 결성하여 회원국 간 정치·경제적으로 협력해왔으나, 카타르의 친(親)이란 정책과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s)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아랍 4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이집트)이 2017년 6월 카타르와 단교하면서 결속이 약화된 바 있음.
- 쿠웨이트는 이와 관련하여 오만과 함께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미국과 함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2021년 1월 아랍 4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서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 회복을 위한 쿠웨이트와 오만의 중재 노력이 높게 평가받음.
- 다만, 카타르가 아랍 4개국과의 외교관계 복원 후에도 단교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지원 중단, 알자지라(Al-Jazeera) 채널 폐쇄, 카타르에 주둔한 터키군 철수 등 아랍 4개국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현재의 화해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20년 9월 말 기준 쿠웨이트 앞 OECD 회원국 ECA의 지원 잔액은 7,740.2백만 달러(단기 337.4백만 달러, 중장기 7,402.8백만 달러)이며, 그 중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4.4% 수준으로 쿠웨이트의 단기외채 상환 부담은 낮은 편임. 정치적 리스크에 의해 발생한 연체금액은 1.7백만 달러 수준으로 총 잔액 대비 미미하고, GDP의 5.0배 및 총외채의 7.8배에 이르는 국부펀드 규모(547,023백만 달러) 및 현재까지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외채상환 능력과 태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21.01)	2등급(2020.01)
Moody's	A1 (2020.09)	Aa2 (2017.05)
Fitch	AA (2016.11)	AA (2015.12)

### Moody's, 쿠웨이트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 국제유가 하락 및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로 쿠웨이트의 경제적·재정적 위험이 증가했고, 부채법(Debt Law) 및 미래세대펀드를 통한 유동성 조달 계획 차질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된 점, 각종 보조금 축소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Moody's는 2020년 중 쿠웨이트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

- 2020년 쿠웨이트 경제는 저유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석유 부문 부진이 심화되며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고 -8.1%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9월 말 즉위한 신임 나와프 국왕은 즉위 후 가문 내 왕세제 임명까지 조속히 마무리하며 왕위 계승을 공고히 함.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도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정책 연속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2020년 12월 실시된 총선 결과 야권의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됨.
- Moody's는 석유 부문 부진에 따른 경제적·재정적 위험 증가와 함께 부채법(Debt Law) 및 미래세대펀드(FGF)를 통한 유동성 조달 계획 차질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된 점, 각종 보조금 축소 등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개선 계획이 미뤄지는 점 등을 근거로 2020년 중 쿠웨이트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